

가장 한국적인 밤: AGI시대, 전주 야간경제의 창조적 전환 특강 계획안

-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전주시가 단순한 ‘스쳐가는 관광’에서 벗어나 ‘멋과 맛이 살아있는 체류형 야간관광도시’로 도약하기 위해, 현재 추진 중인 야간상설 콘텐츠와 야간경제 관광특구 및 MICE 복합단지 조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함. 또한 AI 대전환(AX) 시대를 맞아 미래 스마트도시 및 야간경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전주 관광의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인 ‘창조적 야간경제(CNTE)’로 대전환하고, 궁극적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득 2배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.

I 개 요

- 주 제: AGI 시대, 전주 야간경제의 창조적 전환
- 일 시: 2026년 09월 15일(화) 14시 ~ 16시
- 장 소: 현대해상 15층
- 참석대상: 약 100여 명(관광·문화 유관기관, 상인회, 관련부서, 의회, 시민 등)
- 초청강사: 정창덕 교수(고려대학교 도시미래혁신센터장)
- 주최/주관: 전주시의회/양영환의원 · 채영병 의원

II 세 부 일 정

프로그램	시 간	세 부 내 용
사회 : 채영병 의원		
개회식	14:00~14:10 (10분)	• 개회 및 국민의례 • 내빈 소개 • 개회사: 양영환의원 • 축 사: 최주만 전주시의회 의장/ 조지훈 전주시장
주제 발표	14:10~14:40 (30분)	• [Part 1] 메인 특강(정창덕 센터장) - AGI 시대의 야간경제 가치와 전주의 잠재력
종합 토론	14:40~15:40 (60분)	• [Part 2] 정책 제언 - 전주시의회가 함께하는 전주 4대 야간 시그니처 구상 •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- 강사 및 청중 자유 대담, 정책 수렴
폐회	15:40~16:00 (20분)	• 기념촬영 및 폐회



주요내용

- 미래 패러다임 공유: AGI(범용 인공지능)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, 단순 유흥·소비형 야간 활동을 인간의 감성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‘창조적 야간경제(CNTE)’로 전환.
- 전주형 야간 시그니처 명소 구축: 경기전, 풍패지관, 남부시장, 남문, 팔복예술공장, 덕진공원, 연화정도서관, 아중호수도서관 등 전주의 독보적인 역사·문화 스팟에 야간 조명과 미디어 파사드를 입혀 ‘평생 기억될 압도적 야간 명소’로 재탄생.
-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부흥: 한옥마을 주변으로 가득했던 야간 축제의 에너지를 전주 전역으로 확산하여, 밤새 머무르며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도시로 경제 체질 개혁.



강사소개

- 강사: 정창덕(전 송호대학교 총장, 고려대학교 도시미래혁신센터장)
- 학력: KAIST 경영공학박사
- 주요경력 (도서)
 - “유비쿼터스 시대 IPTV 전자상거래와 e-비즈니스 전략” (2010.08.16. 진한엠엔비)
 - “스마트폰과 인터넷속 윤리 이대로 좋은가” (2010.09.10. 내하출판사)
 - “행복경제” (2012.07.16. MJ미디어)
 - “희망이 이긴다” (2015.12.12. 행복에너지)